

‘오래된 가게’는 충장로 역사이자 문화자원

30년 이상 세월 깃든 충장로 가게들

충장로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무슨 말일까. 오래된 가게를 보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든다. 거꾸로 간다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닌, 충장로가 함의하고 있는 정서와 가치, 지향점을 이르는 말일 것이다.

충장로가 호남상권 1번지라는 것은 바로 호남의 역사를 대변한다는 의미다. 충장로에는 오래된 가게들이 많다.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하던 남양동닭, 취업을 하고 양복을 맞췄던 삼영양복점, 외식을 하기 위해 들렀던 신락원, 성인이 된 것을 기념해 부모님 이 구두를 맞춰주던 노틀담 & 바이스, 시력이 떨어져 안경을 맞췄던 거북이 안경 등...

최근 충장로를 지켜온 상인들의 이야기가 한 권의 책으로 발간돼 화제다. 광주 동구청 지원으로, 충장상인회(회장 여근수)가 발행하고 임인자·황지

갈을 목록히 걸어가는 이들에게서 배어나오는 자부심으로 읽힌다.

현재 충장로 상인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여근수 거북이안경 대표는 곡성이 고향이다. 지난 1976년 광주로 이주했다. 그러다 1982년 충장로에 들어와 지금까지 안경업(거북이안경)을 해오고 있다.

“외국 여행지에 가보면 100년 전통의 오래된 가게들이 많습니다. 충장로 상가에도 2대, 3대째 30년 이상 가게를 이어오고 있는 곳이 적지 않거든요.”

그는 찻마디에 충장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그의 가족은 안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아내와 장남, 차남이 모두 안경사다. 안경렌즈 연마사업은 접었지만 장남에게 렌즈 도매업을 물려줘 가업을 잇고 있다.

가게를 드나들었기 때문에 가족이나 본드 냄새에 익숙하다. 아버지는 스승이자 선배이고,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다.

전남의료기상사 또한 2대째 운영하는 가게다. 일제강점기 충장로에서 약방을 하던 김상순 대표가 해방 이듬해인 1946년에 지금 자리에 전남의료기제작소를 열었다. 올해 만 70세인 김우평 대표는 부친에 이어 2대째 가업을 운영하고 있다. 1952년 전남계량과기제작소로 이름을 바꿨고, 직접 주사기를 제작해 국산 주사기의 명성을 떨쳤다. 1966년에는 지금의 전남의료기상사로 다시 이름을 변경했다.

◇광주 상권의 뿌리, 제2의 도약 준비중
이제 충장로는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박제된 거리가 아닌 21세기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시민의

백광당·도미패션·거북이 안경 등
오늘의 충장로를 일군 보석같은 공간들
2대·3대째 이어오고 있는 가게도 많아
오래된 가게 동판 붙이고 아카이브사업
21세기 새 콘텐츠 생산... 제2도약 준비

운이 쓴 ‘충장로 오래된 가게’ (소년의 서 간)가 그것. 충장로를 지켜온 상인들의 이야기이자, 30년 이상 가게를 이어오고 있는 주인공들의 삶을 담고 있다. 충장로 오래된 가게들은, 광주 사람이라면 한번쯤 가봤거나 들었을 법한 가게들이다.

아카이브 사업을 위해 충장로 상인회는 당초 오래된 가게 63곳을 선정했다. 국제복장, 한성일식, 보광당, 아씨주단 등 58개 가게와 지역은행이 포함됐다. 지역은행은 신한은행, 광주은행, 광주중신협, 민물장어양식수산업협동조합 등이다. 오래된 가게를 선정하는데 상인회 이사(18명)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충장로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이들로 ‘충장로가 살아야 광주가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최근 ‘오래된 가게’ 사업은 동판제작 사업과 맞물려 진행됐다. 2018년 충장로 5가 변영회를 이끌었던 전병원 회장은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함께 동구청과 충장상인회에 제안했다.

아울러 ‘오래된 가게’ 편집위원이라는 직책도 맡아 아카이브를 위한 책자 제작에도 나섰다. 독립출판물서점 ‘소년의 서’를 운영하는 임인자 작가와 황지은 씨가 집필자로 참여했으며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여근수 충장상인회 회장, 정미용 동구의회 의장, 홍기철 동구의회 의원 등의 도움을 받았다.



전남의료기상사 옛 모습.



1968년 당시 광주은행 모습.



도미패션하우스(도미양장점) 40년 전 매장.



1989년 당시 조흥은행 앞 거리.

노틀담&바이스 임종찬 대표는 1973년 남양동닭 맞은편에 노틀담제화점을 오픈했다. 곡성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신진제화에서 기술을 배웠다. “살한 가마니 주고 3년 동안 기술을 익혔다”는 말에서 기능에 대한 열망과 자부심이 읽힌다.

그렇다면 왜 그는 ‘노틀담’이라는 상호를 내걸었을까. 아마도 눈치 빠른 이들은 이제의 고전이 돼버린 영화 ‘노틀담의 꿈’을 떠올릴 것 같다. 노틀담의 꿈 주인공 과치모도가 집시인 에스메랄다를 보고 반하는 내용과 사운드 트랙은 오래도록 잔상이 남는 작품이다.

올해로 구두에 입문한지 50년이 됐다. 반백년의 세월을 그는 사람들의 발을 보고 살았다. 그의 아들 충호 씨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구두를 제작하고 있다. 올해 42세인 충호 씨는 어린 시절부터 공장과

거리를 상징한다. ‘오래된 가게’ 발간을 계기로 옛 것의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충장로는 광주 상권의 뿌리이자 자존심”이라며 “환경의 변화로 예전의 명성이 비록 퇴색한 면도 없지 않지만 상인들과 시민들, 오래된 가게가 함께걸어온 이 길은 명징한 광주의 역사”라고 부연한다.

다행히 희망의 싹은 보인다. 오래된 가게 동판도 붙이고 아카이브 사업도 하면서 상인들도 호응을 많이 해준다고 한다. 작은 변화의 계기가 옛 영광을 재현하는 마중물이 될 것도 같다. 한국의 역사에서 충장로가 지니는 무게와 상징성은 어느 도시 거리에 비할 바 아니다. 다시 제2의 르네상스가 활짝 꽃피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30년 이상 시간속에서 체득된 내공 느꼈지요”

‘충장로 오래된 가게’ 저자 임인자 서점 ‘소년의 서’ 대표



임인자 작가는 “소비의 도심이 아닌 생산기지로서의 충장로를 꿈꾼다”고 말한다.

“가위를 ‘썩’ 하는 순간 그 분의 삶이 고스란히 전해오는 걸 느꼈습니다. 어떤 논리나 방법으로도 전달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뒤팔까 지나온 시간의 쉼 고스란히 몸에 체득돼 있다는 그런 느낌 말이예요.”

‘충장로 오래된 가게’를 집필한 임인자 작가는 ‘정패션’ 정병규·조명자 두 대표의 눈빛에서 설명이 필요 없는, 35년 이상의 시간이 주는 내공을 느꼈다. 체득(體得)의 사전적 의미는 “뜻을 충분히 이해하여 실천으로써 본뜬다”이다. 어떤 분야의 일을 오래도록 하다보면 몸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임 작가는 광주극장 바로 옆에서 ‘소년의 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광주극장 인근에 서점 오픈 준비를 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점을 운영했다. 그리고 올해 8월 극장 바로 옆으로 이전을 했다.

“2016년 ‘충장 디스커버리’를 통해 충장로 아카이브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이번 책을 내는데 자연스럽게 연계됐어요. 이후 충장로상인회에서 오래된 가게를 중심으로 동판사업을 진행했구요. 당시 사람들이 뭔가 자료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오래된 가게’ 발간으로 이어졌죠.”

임 작가는 60여개의 오래된 가게 주인들을 만나면서 “생각의 거리두기가 조금 어려웠다”고 했다. 현재적 관점으로 30~40년의 시간을 바라본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오래된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지수성기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화영 광주주단 대표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

래된 가게를 한다는 것은 세상의 풍상을 온몸으로 겪어내지 않고는 어렵다는 것 일요.”

임 작가가 이곳 충장로에 들어온 것은 대학 졸업 후 이력 저런 활동을 하다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태어나기는 수도권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때 광주로 이사를 왔다. 그녀에게선 광주사람보다 더 광주사람 같은, 남도 특유의 정서나 근기같은 게 느껴졌다.

“중앙대에서 연극연출을 전공했습니다. 연극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가교와도 같은 것이었어요. 한편으로 당시 민속학도 재미있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사람들과 다양한 교류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때는 서울에서 예술감독으로도 활동했다. ‘변방연극제’ 예술감독을 맡기도 했는데, 한마디로 “예술과 현실이 맞닿는 지점을 동시대 감각으로 풀어내는 작업”이었다.

서점은 주인을 닮는다는 데 임 작가도 예외는 아니었다. 책에 둘러싸여 있지만 위압적이나 풀풀한 분위기는 없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 한 분이 ‘살아남은 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많이 팔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소년의 서’라고 서점 이름을 지었다”는 말이 울림을 준다.

“충장로를 배경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졌으면 좋겠어요. 소비의 도심이 아닌 생산기지로서의 충장로를 꿈꿨습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콘텐츠를 만들고 그것을 공유하는 충장로를 그려봅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담보
2관	담보
3관	테넷, 죽지않는 인간들의 밤, 기괴괴기 성형수
4관	담보, 디바
5관	국제수사
6관	국제수사
9관	국제수사
7관 씨네커튼	그린랜드 죽지않는 인간들의 밤, 검객, 외 문화
8관 씨네커튼	그린랜드, 검객, 디바, 국장판 포켓몬스터 무츠의 역습 EVOLUTION, 국장판 미니특공대, 햄버거괴물의 습격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경계의 공간

GAC기획전시
경계의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백건우와 슈만

회관 개관29주년 기념 특별기획
백건우와 슈만
2020. 10. 20.(화) 19:30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라흐마니노프

GAC기획공연 FOCUS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2020. 10.16.(금) 19:30, 17(토) 17:00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즐거움
문화산책

2020
일일무비가
찾아옵니다

담보